

‘정원도시’ 순천, 초등생 대상 미래정원사 키운다

순천시·교육청 전국 첫 업무협약

초등 2학년 교육과정 연계 양성

미래 정원문화 리더 성장 기대

‘정원 도시’ 순천시가 미래정원사를 양성한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은 10일 순천만관리센터 정원실에서 ‘초등학생 대상 미래정원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는 정원도시답게 지역 학생들에게 유년기부터 정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정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미래정원사 이수제’를 운영한다.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미래정원사 프로그램 강사 및 재료, 학교정원 가꾸기 사업 자문 등을 지원한다. 순천교육지원청은 학생 안전교육, 초등 교육과정 및 생태환경 교육과 연계한 미래정원사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미래정원사 프로그램은 초등 2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오감탐방, 꽃씨약국, 정원조성실습 등 가드닝 기초활동반과 심화반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인증하는 이수증이 발급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마음껏 뛰놀며 꽃과 나무를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원문화 활성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길훈 순천교육장은 “정원문화 교육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 및 올바른 정서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접하면서 미래 정원문화의 리더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생태환경교육, 진로, 진학교육과 연계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2015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은 10일 순천만관리센터 정원실에서 ‘초등학생 대상 미래정원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 꼬마·미래·시민정원사 등 계층별 다채로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八馬 활용 순천시 캐릭터 공모 대상 500만원...16일부터 접수

순천시가 말(馬)을 주제로 친근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개발한다.

순천시는 도시 브랜드 확립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팔마(八馬)’를 활용한 순천시 캐릭터 공모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말의 소재로 한 독창적인 캐릭터 개발이 취지이며, 공모 주제는 ▲순천의 상징 ‘팔마’의 가치와 정신을 내포한 캐릭터 ▲이모티콘·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범위에 활용 가능한 대중성 높은 캐릭터 작품이다.

순천시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이며, 참가 신청서와 출품작은 전자우편(c2hhoney@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심사는 관련 분야 전문 심사단이 총 10작품을 선정하고 2차에서는 1차 심사 통과 작품을 대상으로 은·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당선작은 다음달 24일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대상(1명)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1명) 300만원, 우수상(2명) 100만원, 장려상(6명) 5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품은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기간에 순천글로벌센터 1층 민화도서관에 전시·공개될 예정이다. 또 공모전 수상작품에 대해 캐릭터 상품화 개발 컨설팅을 거쳐 상용화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쓰레기매립장 입지 연내 선정

내일까지 이름 공모 등 속도

순천시가 쓰레기 대란을 해결할 ‘(가칭)생태환경공원’의 이름을 13일까지 공모하고, 연말까지 입지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생태환경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공원은 1일 처리용량 60t의 재활용시설과 1일 처리용량 200t의 소각시설, 매립시설까지 갖춘 환경기초시설이다.

순천시는 이 사업을 공개적·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지선정위는 ‘폐기물처리시설법’에 근거한 법적 기구로, 입지 선정, 시공, 쓰레기 처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입지 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행

정 절차’를 진행했다. 입지선정위는 13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칭)생태환경공원’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고, 오는 12일까지 최종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생태환경공원’은 과학적인 시스템과 친환경기술을 도입해 단순 소각을 넘어 열과 전기를 에너지로 회수하는 친환경 주민친화적 시설로 만들어진다. 선정된 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 중이다.

앞서 순천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잔여용량 2~3년 밖에 남지 않은 왕지동·주암면의 생활폐기물 매립장 활용 방안과 ‘생태환경공원’ 조성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공론화위는 민간전문가,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도시 쓰레기문제 처리를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7월부터 60일 동안 ‘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선정 계획’ 공고를 내고 입지 후보지를



순천시는 쓰레기 대란을 해결할 ‘생태환경공원’ 입지 선정을 위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잔여용량 2~3년 밖에 남지 않은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공모했지만, 신청자의 철회로 후보지를 정하지 못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한계에 임박한 만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시

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쓰레기 대란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보조금 최대 4000만원

순천시, 25일까지 신청 접수

순천시가 올해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1000만원까지 지원했던 보조금을 올해는 최대 4000만원까지 늘렸다.

순천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01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민간의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분야별 지원조건을 개선했다.

건축물의 옥상·벽면 녹화 사업은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제한을 없앴고, 당초 공사비 50%이내 1000만원까지 지원했던 보조금을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4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또 꾸준히 인

기를 끌어온 패시브하우스는 보조금을 1000만원 증액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순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6년간 패시브하우스 등 민간건축물 221곳에 15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국에서 패시브하우스 건축기술 인력과 국제 공인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자체가 되는 등 생태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건축물 옥상과 벽면 녹화에 대한 지원금이 높아진 만큼 정원문화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패시브하우스로 건립된 명말경로당.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